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22호(2018. 6) pp.383~392.

한국아동문학사의 집필을 위하여

－원종찬, 『한국아동문학의 계보와 정전』, 청동거울, 2018.

류덕제*

원종찬 교수의 『한국 아동문학의 계보와 정전』이 새로 출간되었다.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새로운 아동문학사 구성과 정전화를 위한 기초 연구의 성격”을 지닌다고 하는 데서 집필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특히 ‘계보’와 ‘정전’이란 개념은 문학사와 무관하지 않음을 금방 눈치 챌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 책 하나로 아동문학사 집필의 목적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원 교수는 그간 아동문학에 집중해 연구를 해 왔다. 그와 같은 시기에 학문적 출발을 했던 필자로서는 원 교수를 모험적인 사람으로 생각한 적이 있다. 학문의 길이 분명 일종의 ‘모험’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여기서 말한 ‘모험’은 그런 뜻이 아니다. 당시는 아동문학을 학문적 대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따라서 아동문학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모험’인 것이다. 그러나 선택의 결단이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원 교수는 성공한 모험가다. 물론 성공의 뒤안길을 돌아보자면 연구 성과에 대해 이렇다 할 주목도 받지 못하고 오랫동안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린 긴 시간의 기다림이 필요했을 것이다. 남에게는 가볍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당자로서는 힘든 과정이었음이

*대구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ryudj@dnue.ac.kr

분명하고 어쩌면 남모르는 회오도 있었을 것이다.

필자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개인적인 경험이 많이 묻어 있다. 학문의 길에 들어서면서 자료 수집 목적으로 전국의 고서점을 숱하게도 쏘질러 다녔다. 신혼여행이라고 반도의 남쪽 일대를 자동차로 주유하면서도 그 지역의 고서점을 빼놓지 않고 섭렵해, 집사람으로부터 '이런 신혼여행을 한 여자는 아마 없을 것'이라며 핀잔 아닌 핀잔을 듣기도 하였다. 살고 있던 대구는 일상적인 순례를 하다시피 하였고, 서울의 청계천과 인사동의 고서점, 부산 보수동, 광주, 전주, 목포, 대전, 청주 등등을 두루 수시로 찾아다녔다. 현장을 발로 뛰면서 문학 공부를 하였다 해도 과장이 아니었다. 그 당시 인사동의 한 고서점 주인은 경상도 사투리가 심한 필자에게 지도교수의 성함을 부르며 아느냐 묻고는, 인연이라며 『삼대』에 나오는 '매당집'의 위치 등등이 표시된 손수 그린 1930년대 경성(京城)의 지도를 주었다. 몹시 놀랐다. 하기야 통문관(通文館) 등 인사동 소재 여러 고서점과 그 주인들의 인문학적 안목과 수준은 아는 사람들은 익히 아는 터였다.

지금 생각하면 긴요한 자료인데 그때는 그저 지나쳐버린 아동문학 도서가 한둘이 아니었다. 애초부터 '모험'을 하지 않으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임화(林和), 한설야(韓雪野), 카프(KAPF), 〈조선문학가동맹〉 등에 미쳐 아동문학은 관심 밖이었던 것이다. 이는 나만의 독특한 경험이 아니라 당시 국문학도들의 일반적인 정서였다. 원 교수도 이런 정서에서 살았을 것이고, 필자와 같은 범주에서 학문적 훈련을 쌓았을 것이다. 이런 사정을 두고 볼 때 원 교수가 아동문학에 눈을 돌린 것은 혜안이 탁월한 경지임을 말해주는 징표라 아니 할 수 없다.

이야기가 길어졌다. 그간 원 교수가 발간한 아동문학 관련 도서만 하더라도 한 손으로 꼽기 어렵다. 『아동문학과 비평정신』(2001)을 필두로 『동화와 어린이』(2004), 『한국 근대문학의 재조명』(2005), 『현덕전집』(2009), 『한국

아동문학의 쟁점』(2010), 『북한의 아동문학』(2012), 『동아시아 아동문학사: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2017) 등의 저서와 『권정생의 삶과 문학』(2008), 『한국아동문학사의 재발견』(2015) 등의 편저가 그것이다. 아동문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한국아동문학총서 1~50』를 빼놓을 수 없다. 앞에서 '모험'이라 말한 학문적 여정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저서들을 보면, 원 교수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는 연구의 자장(磁場)과 진폭(振幅)이 일제강점기와 해방기를 아울러 전 시기 전 영역에 걸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여느 연구자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연구대상의 범위가 넓고 작가와 작품의 수도 많다. 서지 확인, 원본 확정을 통한 기존 연구에 대한 비정(批正)은 일상적인 연구 주제가 되다시피 하였다. 학문적 체계를 갖춘 것으로는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재철의 『한국현대아동문학사』(1978)에 대한 꼼꼼한 검토와 비판이 이어진 것은 물론이다. 필자는 이상과 같은 원 교수의 연구 성과들이 모두 한국아동문학사의 서술이라는 목표를 전제로 한 장기 기획이었다고 본다.

원 교수는 지금 여기서 한국아동문학사를 집필할 수 있는 유일한 연구자다. 이재철이 한국 아동문학 연구를 학문적 반열에 올려놓은 첫 번째 연구자라면 그의 학문적 업적을 잇되 뛰어넘어야 하는 버거운 과제를 안게 된 사람이 원 교수다.

새로운 시각과 가치 평가

『한국 아동문학의 계보와 정전』은 크게 3부로 구성되었다. 1부에서 『별나라』, 『신소년』, 『어린이』 등 일제강점기의 주요 아동문학 잡지와 해방기와 한국전쟁기의 아동문학을 살폈다. 2부에서는 윤석중, 이원수, 이주홍, 구인회 문인들, 현덕, 강소천 등의 아동문학을 '계보'란 관점에서 논의했다. 3부에서는 아동문학의 정전과 문학교육 및 작가 인터뷰 등으로 범위

를 넓혔다.

일제강점기 주요 잡지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해방기와 한국전쟁기의 아동문학을 점검한 것도 문학사가 감당할 몫이다. 윤석중과 이원수를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이란 준거로 양분하여 살핀 것도 문학사 기술과 무관하지 않다. '두 기둥 세워서 보기'란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연구 방법이다. 문학이든 사람이든 관계와 맥락을 벗어나서 가치를 평가하는 일이 얼마나 부실하고 균형을 잃을 수 있는 일인가는 췌언을 불요한다. 백범(白凡)을 알아보고자 하면서 우남(雩南)과 견주어보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법이다. 이주홍(李周洪)과 현덕(玄德) 그리고 강소천(姜小泉)을 계보란 잣대로 살펴보는 것이 바로 역사적 시각 혹은 관계와 맥락에서 대상을 인식하기 위한 작업이라 할 것이다. 이주홍을 리얼리즘의 계보에서 살피는 일은 누구나 하는 일이다. 그러나 '즐거움의 계보'에서 살피는 일은 새롭다. 문학은 '교훈'과 '재미'가 적절하게 결합된 예술이다. '교훈'만으로는 윤리 교과서를 능가하기 어렵고, '재미'에만 치중하면 말초적 쾌감에 떨어지고 만다.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적절'과 '조화'를 산술적 수치로 밝힐 수는 없어도 감식안(connoisseurship)을 갖춘 독자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여느 독자가 직관적 인식에 머문다면 이를 논리적인 언술로 해석하고 규정하는 것은 연구자의 몫이다.

친일 아동문학과 순수문학

친일 아동문학에 대해 원 교수는 "적발과 단죄보다는 청산과 극복에 무게가 주어지는 위태로운 균형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154쪽) 하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했다. 필자가 '조심스럽다'고 한 것은 단정적이지 않은 문장 전개 때문만은 아니다. 원 교수는 「친일 아동문학 재론」의 도처에서 의문형 문제 제기를 자주 많이 하고 있다. 단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어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아직 학계의 연구가 폭이나 깊이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그랬다고 보인다. '적발과 단죄'가 없이 '청산과 극복'이 가능할까 싶기도 하나, 온당한 시각이라고 판단된다.

이재철이 윤극영과 정인섭 그리고 김영일(金英一)의 친일을 문제 삼은 것이나, 박태일이 이원수의 친일작품을 적발한 것은 그 자체로는 사실이고 정당하다. 김화선과 박금숙도 마찬가지다. 점(點)은 선(線)을 전제로 평가되어야 하고 선은 다시 면(面)의 관점에서 살펴야 그 좌표가 온전하게 드러난다. 이원수의 친일적인 몇 작품으로 그를 매도하거나 아동문학사에서 무화시킬 수는 없는 법이다. 작품이 문제가 되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이원수의 경우와 작품 이외의 친일 행위가 있지만 등재 되지 않은 아동문학가를 아동문학사가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 연구의 손길이 미친 작가는 친일 작가가 되고, 그에 버금가는 친일 활동이 확인된 여러 작가, 곧 김소운, 마해송, 박팔양, 송창일, 신영철, 이주홍, 정현웅, 정홍교, 홍은성(홍효민), 윤극영 등이 제외된 것은 누가 봐도 수긍하기 어렵다. 아동문학에서 일제강점기 말의 작품과 작가 활동은 더 연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작품과 작가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진 후 대소경중을 가려 친일 여부를 가려야 한다. 친일 문제는 식민지 경험을 가진 우리의 경우 몹시 예민한 문제이자 문학사 서술에서 중요한 가치 평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순수주의', '순수문학'은 아동문학도 비켜가서는 안 되는 한국문학의 역사에 있어서 주요 개념이다. 일찍이 '비순수의 선언'이 있었듯이 '순수'라는 어의(語義)가 가치를 대변하는 왜곡 현상은 진작 바로잡혔어야 할 부분이다. 원 교수는 이를 문협정통파의 순수주의와 아동문학의 동심천사주의 그리고 교훈주의와 연결시키고 있다.

아동문학을 일반문학의 종속물로 보는 것은 아동문학을 모르는 탓이다. 반면 아동문학을 일반문학의 흐름과 별개로 취급하는 것은 일반문학에 대

한 이해가 부족한 까닭이다. 이 둘은 구성주의적 용어를 빌어 말하면 '합당한(viable)' 참조가 필수불가결하다.

정전(canon) 논의에서 '문학사'를 다룬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문학사 집필은 문학의 장에서 활동한 작가와 작품을 평가하여 자리 매김을 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문학전집 또한 정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누군가의 손에 의해 작가와 작품에 대한 선별 작업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아동문학 활동을 했던 모든 사람이 문학사에 등재되는 것은 아니다. 등재될 만한 가치가 있는 작가와 작품이 등재된다. 무엇이 가치가 있고 어떤 것이 무가치한가? 여기에는 납득할 만한 기준을 설정하고 객관적으로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전은 이 과정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정전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가변적이다. 관점과 해석의 기준이 달라지면 정전도 달라지게 된다. 동일한 작품에 대한 정전적 해석(canonical interpretation) 또한 새로운 정전적 해석에 의해 극복될 것이다.

고정 관념의 극복

『별나라』와 『신소년』, 그리고 『어린이』에 대해서는 하나의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다. 『별나라』는 계급주의, 『신소년』은 절충적 입장 그리고 『어린이』는 우파 민족주의와 같은 성격 규정이다. 그렇게 볼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잡지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단순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별나라』는 무산아동(無産兒童)을 위한다는 것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출발했지만 1926년 6월 창간호를 발간한 이후 1920년대가 다 가도록 이렇다 할 계급주의적 색깔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 객관적 사실이다.

계급주의 아동문학 쪽에서 '동심천사주의'로 공격했던 『어린이』도 계급주의를 배척한 것만은 아니었음이 사실로 확인된다.

『신소년』이 문단 좌우합작 노선에 입각해 있었다는 점, 따라서 『어린이』와 『별나라』 '둘 사이에 끼인' 어정쩡한 절충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도 원 교수가 밝히고자 한 내용이다.

난마(亂麻)처럼 얽힌 현상과 사실을 쾌도(快刀)로 분류하여 정리하고 요점을 추출하는 작업이 연구의 본질일 것이다. 그러나 성실한 사실 확인과 원본 비평이 부재한 상태에서 대상을 규정하고 해석하는 것은 오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아동문학의 역사에서 『어린이』, 『신소년』, 『별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 볼 때 원 교수가 이들 잡지에 대한 검토를 책의 앞머리에 놓은 뜻을 짐작할 수 있겠다.

아동문학 연구자들의 공동 과제 하나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간 사람이 많으면 그게 곧 길이 된다고 말한 중국의 문호 루쉰(魯迅)의 말이 생각난다. 아동문학 연구의 마당에 첫 번째 길을 낸 사람은 이재철 교수다. 그의 문학관이나 역사관이 아동문학사 서술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게끔 만들었다. 원 교수는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 따라서 원 교수가 집필할 아동문학사는 이재철의 아동문학사가 맡은 거친 '통로' 역할에 멈추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역할은 이재철 말고도 윤석중의 「한국아동문학소사」, 「한국동요문학소사」, 「한국아동문학서지」, 『어린이와 한평생』(1985) 등이 일정 부분 감당하고 있다. 원 교수는 소로길도 살펴야 하고 길에 놓인 돌의 크기와 무게도 분간해야 한다. 울퉁불퉁한 길을 포장하는 작업까지도 떠맡아야 할 것이다.

원종찬 교수의 문장은 명쾌하다. 간명하면서도 의미전달력이 높다. 어휘 선택이 적절하고 논리 전개가 분명하다. 필자는 원 교수의 글을 읽을 때마다 이 점이 몹시 부럽다. 칭찬만 늘어놓다가는 '주례사 비평'의 말석에도 끼워주지 않을 듯해 몇 가지 바람을 적고 글을 마치고자 한다.

문제는 『별나라』였다. 초기 『별나라』는 배후가 가장 취약했다. 1920년대 중반 이후에 창간되었음에도 뚜렷한 사회적 배경을 가지지 못한 일개 동인지 수준이었다. 1926년 7월호(제2호)의 필진은 'K생, 희명, 원섭, 벽파(碧波), 서록성(徐祿成), 천파(天葩), 운파(雲波), 고양(孤羊), 백홍렬(白興烈), 정규선(丁奎善), 실버들, 구름결, 김안서, 주요한, 봄꽃, 리주봉, 나비꿈, 김도현(金道鉉), 접몽(蝶夢), 가석(可石), 안경석(安景錫)' 등이고, '편집 겸 발행인 안준식(安俊植)'으로 되어 있다. 안서 김억과 주요한은 편집자가 기존의 시집에서 작품을 골라 실은 것으로 등장했으니, 운파 안준식 정도를 빼고는 모두 신원을 알 수 없는 필자들이다. 실버들이 '버들쇠 유지영'인지, 접몽이 '고접(孤蝶) 최병화'인지조차 확인되지 않는다. 1927년 4월호의 필진은 '염근수, 안준식, 최병화, 양고봉, 이성환, 최희명, 한정동, 낙랑(樂浪), 김기선(金基宣), 실버들, 파인(巴人), 딸랑애비, 강병주(姜炳周), 춘서(春曙), 이정호, 소녀성' 등이다. 개벽사의 이성환, 이정호, 그리고 당시 주요한과 더불어 민요시를 주창한 파인 김동환을 뺀다면, 염근수, 최병화, 한정동이 알 만한 필자들이다. 1927년 6월호(돌맞이 기념호)의 필진은 '김우석(金禹錫), 간난이, 염근수, 안준식, 신봉조(辛鳳祚), 강창희(姜昌熙), 조동식(趙東植), 이종숙(李鍾肅), 한정동, 이경손(李慶孫), 강병주, 박아지, 실버들, 연성흠, 김영희(金永喜), 윤기항(尹基恒)' 등이다. 알 만한 필자로 박아지, 연성흠 정도를 더 추가할 수 있다. (28쪽) (밑줄 필자)

문학사란 무엇인가? 작가와 작품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이다. 일제강점기 문인들은 하나같이 다양한 필명(호, 이명, 창씨명 등)을 사용했다. 일반문학에선 여러 사람이 오랜 노력으로 필명의 대부분을 밝혔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아동문학은 아직 갓 발걸음을 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는 이 작업이 매우 긴요하다는 점이다. 알다시피 본명과 필명으로 작품 활동을 한 작가가 서로 다른 사람으로 오인된다든

지, 다른 사람을 같은 사람으로 잘못 동일시한다면 큰 문제가 된다. 가치를 평가해 자리매김을 하는데 돌이킬 수 없는 오류를 빚을 것이기 때문이다.

원 교수는 위의 인용에서 안준식, 이성환, 이정호, 김동환, 염근수, 최병화, 한정동, 박아지, 연성흠 정도를 알 만한 필자라 하였다. 필자도 위에 제시된 필명들을 다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기는 하다. 하나 어떤 방식이든 지적과 수용, 추가 노력 등이 중첩되어야 더디더라도 하나씩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

희명(崔喜明)은 당시 대구사범학교 재학 중이었고 졸업 후 경상북도 의성(義城) 지역에서 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별나라』의 동인이었고, 필명은 실버들이다. 따라서 버들쇠 유지영(柳志永)과는 무관하다. 구름결은 운파(雲波)를 한글로 풀어쓴 것으로 안준식의 필명이다. 나비꿈과 접몽(蝶夢)은 최병화의 필명이다. 최병화의 필명으로 널리 알려진 고접(孤蝶)은 이원수(李元壽)가 「동일 승천(冬日昇天)한 나비 최병화 형」(『이원수전집』, 제29권, 웅진출판사, 1984, 173쪽)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겨울 속의 한 마리 나비란 물론 비유이지만, 그의 호(號)가 고접(孤蝶)이었던 것은 그의 승천과 무슨 관계라도 지어지는 듯하다"라 하였다. 이후 이재철의 『한국현대아동문학사』(일지사, 1978)와 서지학자 하동호(河東鎬)의 『한국근대문학의 서지연구』(깊은샘, 1981, 257쪽)에서 되풀이되었다. 최병화는 죽을 때까지 단 한번도 스스로 '孤蝶'이란 필명을 사용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원수의 기억 착오로 시작되어 이재철과 하동호가 추수한 것으로 보인다. 김도인(金道仁)은 인천(仁川) 출신으로 『별나라』의 동인이고 필명이 가석(可石)이다. 낙랑(樂浪)은 백천(白川), 소녀성(少女星) 등의 이름으로 작품을 발표한 염근수(廉根守)의 필명이다. 강병주(姜炳周)는 『아동가요곡선삼백곡(兒童歌謠曲撰三百曲)』(평양, 농민생활사, 1936)을 펴낸 강신명(姜信明)의 아버지다. 필명은 백남(白南), 옥파(玉波), 이를 한글로 푼 구슬결 등이 있다. 경상북도 영주(榮州) 출신의

목사인데 초기 『별나라』에 다수의 동요 등을 발표하였고 고선위원(考選委員)으로도 활동하였다. 김영희(金永喜)는 『별나라』 발행인인 안준식의 부인인데 『별나라』의 동인으로 다수의 작품을 발표하였다. '春曙'는 마춘서(馬春曙)로 경기도 고양군(高陽郡) 출신으로 『별나라』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신보』 등에 다수의 시, 시극과 동화를 발표하였다.

위에 언급하지 않은 수많은 일제강점기의 아동문학가들이 여러 가지 필명으로 작품을 발표하였다. 필자가 일제강점기 아동문학가의 실체를 바로 알자면 우선적으로 필명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해 오랜 기간 자료를 정리한 게 있어 일부를 지적할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 아동문학 매체에는 우리 연구자들이 주목하지 못한 작가들이 많다. 일제강점기의 문학은 운동과 분리될 수 없다. 아동문학도 소년운동, 소년문예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필자가 한반도 지도를 놓고 일제강점기 아동문학 작가(소년문사)들의 분포도를 그려본 적이 있다. 함경도 회령(會寧)에서 한반도 남단 마산(馬山)에 이르기까지 두루 걸쳐 있었다. 골골마다 소년회와 소년문예단체를 조직하고 동요와 동화를 창작해 투고하고 작품을 모아 책으로 출판하기도 하였다. 이들 모두가 문학사에 등재될 수는 없지만 이런 사정이 결락되어서는 올바른 문학사가 될 수 없다. 작가와 작품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고찰이 필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